



이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일체 만물이 다 까리까리 모이듯, 우리가 이렇게 마음공부 하는 분끼리 한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억겁을 거쳐서 진화되면서 인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육체 속에 모든 생명과 의식, 모습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미생물에서부터 수없는 과정을 거쳐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바로 우리 육신 속에 있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잉태됐을 때에 열 달 동안 그 모습들을 가지고 형태를 바꾸어 가면서 조성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잉태될 때에 처음부터 사람 모습으로 잉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개구리 알처럼 흐늘흐늘하게 시작이 돼서, 웅얼이처럼 돼 가지고 수없이 그 모습을 바꿔 가면서, 열 달을 채워서 인간 모습으로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모자라는 거, 잘못되는 거, 또는 잘못된 모습들, 하(下)의 생명들의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볼 때에 돌로 보지 마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수없는 나날을 지나 오면서 그런 모습을 거쳐서 진화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사람을 보더라도 옛날의 내 모습, 내 모자람으로 보고, 어떠한 모습을 봤을 때도 바로 과거의 내 모습으로 봐야 이 소립니다.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되풀이하느냐 하면, 그렇게 거쳐 온 그 중생들이 나 아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부 나입니다. 수심역의 의식들이 전부 내 의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을 지은 그 의식들이 전부 내 의식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훔쳐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그 업을 지닌 인연에 따라서 모두 작용이 되고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러니만큼 자기가 자발적으로 생각을 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나'가 있습니다. 사랑적인 욕안으로 보고 듣고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말하는 '진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속에 들어 있는 만 중생들이 모두 제각각을 한 가지씩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는 뿔의 기능, 말은 발차기 기능

을 소유하듯, 밖에 있는 일체 만물들, 인간 이하의 모든 동물들도 역시 한 가지씩은 기능을 다 가졌다고 봅니다. 축각으로 움직여지는 것도 있고, 또는 청각으로 움직여지는 것도 있고, 또는 청각으로 움직여지는 것도 있고, 후각으로 움직여지는 것도 있고 그렇게 천차만별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의식들도 모두 한 가지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안팎에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움직여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들이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딱딱 때마다 우리가 타파할 수 있고, 또 만법으로써 움직여질 수 있는 그 심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지씩 기능을 가지고 사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다 포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만 가지 법을 하나의 마음으로써 다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거든지 다 내 마음으로 그

쪽의 마음과 돌이 아니게끔 하면 그쪽에서 그대로 응하고 돌아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이하의 모든 것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내 몸속에 있는 의식들도 다 내 마음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도둑질을 하러 가자 하면 도둑질을 하러 가게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전력 얘기를 항상 하는데, 전력은 '나쁜 짓을 해라, 좋은 짓을 해라' 하고 전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데 따라서 나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합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모든 의식도 내 마음에 따라서 응해 줍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악업으로도 쓸 수 있지만 선업으로도 쓰고, 악업과 선업이 한데 합쳐서, 한 마음이 돼서 바로 응신(應身)으로서 대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응신! 즉 말하자면 그렇게 응신으로 화(化)해야 응신으로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아서 자유스럽게 살

자는 뜻이지, 무슨 말만 배우러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으로나 가정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세계적으로나, 나아가서는 우주적으로나 모든 걸 대응하고 작용하고 중용을 할 줄 알고, 어떤 거든지 걸림 없이 자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대권을 갖기 위해서 이런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소리도 가끔 합니다. 제일 빠른 게 거그러니까, 만약에 어저께 남을 속이고 따귀를 때렸다면 결국은 오늘 반드시 그 따귀가 돌아옵니다.

그와 같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만 과거가 아니라 바로 한 시간 전도 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조사들이 깨친 것은 바로 과거생·현재생·미래생을 다 한꺼번에... 그것이 과거생만 있어도 아니 되고, 현재생만 있어도 아니 되고, 미래생만 있어도 아니 되는 거죠. 즉 말하자면 내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아니 되고, 마음 내는 게 없어도 목석의 테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육신이 없어도

보이지 않으니까 무효입니다. 그와 같이 과거생과 현재생, 미래생 바로 삼세가 한데 합쳐서 돌아가면서, 삼생(三生)의 의지를 가지고서 지금 살림살이를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소라고 한다면, 소를 안 탄 분이 하나도 없죠. 소를 안 탄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전달을 하고, 또는 말로 전달을 하고, 행으로 전달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피리란 말이예요. 피리! 우리가 한생각을 깨쳤다면, '여여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소를 타고 여여하게 피리를 불면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法身)입니다. 몸이 움직여졌다 하면 화신(化身)이고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그대로 중생이고 그대로 부처고, 그 한생각 돌리면 그대로 법신이고, 그대로 화신이고 보현신입니다. 마음의 도리, 이 마음의 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엇그저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분들은 잘 들으시라고요. 또 노인네는 죽어서 요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올 테니까 들어야 하고, 아버지들은 아버지란만 그냥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들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또 젊은 청년들은 앞으로 창창하게 부부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테니까 들어야 하고... 그러기에 얘기했습니다.

이 공부라는 것은 오직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를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구상해서 맡겨 놓는다면 그대로 체질도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러는 깨달에 아기를 잉태할 때 어떠한 형상과 아름다운 마음씨를 원한다면 모든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놓고 좀 밝게 태어나게 하면 어떻게겠느냐 하는 거죠. 부부가 어디다 세워 놔도 관찰을 정도라면 그대로 두고요. 부부기간에 '나는 간관이 좀 안됐어!' 이랬을 때는 2세를 가차없이 좀 인물을 좋게 해서 태어나게 하면 어떠냐구요. 이게 마음의 발전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음의 발전을 이루는 거지, 생활이 없이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없는

26면으로 계속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차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트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感 체험
	샤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활~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영남범음범패 제5기 학인모집

- 초 급 : 목탁기본습의,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향수해례, 삼보통청, 지장청, 관음청, 신중청
- 중 급 : 사물다루는법, 요잡, 시다림, 점안식, 일백사위, 삼십구위익식, 관음시식, 전시식, 상용영반
- 고 급 : 천도의식, 49재의식, 구병시식
- 개강일시 : 2016년 3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일년과정)
- 모집대상 : 승려, 법사
- 강의장소 : 대한불교원효종 고왕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463번지 17-27 (강주 : 상일스님)

수강비와 강의책은 무료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부처님법 바르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합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565-3번지
☎ 052-262-6857 / 010-9709-8850

제9기 송강범음범패 전승회 수강생 모집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 목 : 49재 의식(평염불) 천수바라, 도량계 작법무, 사물 다루는 법
- 장 소 : 안성시 영평사 중앙불교대학원
- 시 간 : 오전 9시 ~ 오후 3시(1년과정)
- 비 용 : 입학비 이십만원, 수강료 무료
- 개강일시 : 2016년 3월 11일 오전 9시

특강 | 홍고(새벽에 치는 큰북) - 문곡스님
성명학 - 삼규스님
태평소 - 시우스님

• 연락처 : 회장(관희) 010-8290-6623
강주(문곡) 010-3727-0870
총무(진호) 010-5306-0856

모두 '할 수 있어' 지 '해 주십사'가 아닙니다!

25면에서 계속

영혼이 발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부딪치는 생활 속에서 마음이 발전해야 바로 진화가 되고, 진화의 능력으로써 바로 창조력을 이끌어 창조를 하게 됩니다. 모든 생활 자체가 그냥 과학적이 되는 거죠. 과학도 물질과학이 아니라 심성과학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마음씨를 생각을 해서, 인태를 해서 한 아이를 갖다가 착 내뱉을 때, 어디다 세워 놔도 모순이 되지 않을 때 이것이 과학입니다. 그러고도 일반 과학으로서 할 수 없는 심성과학입니다. 어떻게 습니까? 거짓말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지 않고, 먹어 보지 않고, 잘라 보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모릅니다. 남의 말만 듣고 이렇게 해서 실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 해 봐야 알죠.

오늘도 스님네들이 잣을 요렇게 소나무 이 파리에다 잘 꿰어서 가져왔는데, 이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전자에 산에서 살 때, 잣을 따서 깔 때는 손에 그 잔뜩잔뜩한 걸 다 문하면서, 요만큼만 까도 그것이 너무나 어렵게 한 거라 참 귀해서 그것도 큰스님네들 입에나 들어갔지, 그 밑의 사람들은 맛도 못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한 알갱이를 입에 넣으려면 양심에 가책이 돼서 못 넣었다 이 소립니다. 그거 하나만 볼 때 그건데... 요새 살림살이하는 분들은 얼마나 흔하게 습니까? 잣뿐이 아닙니다. 버섯이나 나물이나 이런 것도 말입니다. 하나하나 따서 조금씩 해서 양념으로 쓰던 그때, 입에나 넣었습니까, 어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해 보지 않고 자기가 겪어 보지 않고는 아까운 줄 모른다 이 소립니다.

돈도, 몸속 어렵게 번 돈은 아주 마디게, 쓸 때만 딱딱 쓸 수 있는 거지만, 그냥 흔전전전히 들어오는 돈이라면 흔전전전히 또 나가게 됩니다. 돈은 어떻게 벌었느냐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돈 쓰기가 더 어렵다고 보죠. 저는 어려서부터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인생살이를, 삼세를 꿰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체험을 했지만, 아직도 인간이 다 됐느냐 한다면, '하! 다 되지 못했다' 할 수도 없고, '다 됐다' 할 수도 없는 경우입니다.

자기 마음이 바뀌면서, 계발이 되면서 자꾸 달라지는 원인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자에 모자랐던 것을 채울 수도 있고, 전자엔 잘했는데 타락이 돼서 그 능력이 그냥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유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선업을 쌓는 것도 자유고 악업을 쌓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왜 될 수 있으면

선업을 쌓고 악업을 쌓지 말라고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악업을 쌓으면 대대로 악업이 내 앞에 올 것이고, 선업을 쌓으면 대대로 선업이 올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한번 잘 둘러 보십시오.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어떤 생명이든 어떤 물질이든 다 끼리끼리 놓여 있습니다. 끼리끼리 삽니다. 그러니까 악업을 지는 사람은 악연을 가진 사람들과 모이게 돼 있지요. 그건 자동적입니다. 누가 가라 오라 해서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항상 얘기하죠. 나물은 나물대로 놓여 있고, 사과는 사과대로 놓여 있고, 그것도 크나 작으나에 따라서 또 나누어 놓기도 하고, 강풍은 강풍대로 놓여 있고 무쇠는 무쇠대로 놓여 있고... 이것을 가만히, 병풍 둘러 치듯 한 이 세상만사를 한번 둘러보면, 인간의 처연도 어떠한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살라고 내뱉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스럽게 하되 왜 선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악으로 끌고 가느냐는 문제입니다.

육신이야 죽고 산다 하지만 마음이야 어찌 온 것이 있고 갈 것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마음으로부터 이 지구가 돌아가고, 마음으로부터 일체 만법이 다 형성되고 돌아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하나가 깨쳐서 한 마음이라면 일체제를 마음도 거기에 한꺼번에 다 속해 있고, 일체 중생, 일체 우주 만물 만생이 다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다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 한꺼번에 움직여지면서 한 마음으로 한자리를 하기 때문에, 축적으로 하는 기능이 있거나 또는 후각으로 하는 기능이 있거나 하는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모두 굴릴 수 있습니다. 자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계의 모든 문제들도, 그 영령들도 그렇게 한마음으로 한다면 모든 게 다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두 마음으로 하면 싸움이 있겠지만 한 마음으로 바로 돌아 아니게 놓는다면, 내가 된다면, 돌아 돼야 액이 오고 혼란이 오고 그럴 텐데, 하나가 돼 버리니까 혼란이 없죠,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태어

릴 수밖에 없죠. 삼세를 그냥 돌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넘어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애고가 와도 어쩔 수가 없고, 병고가 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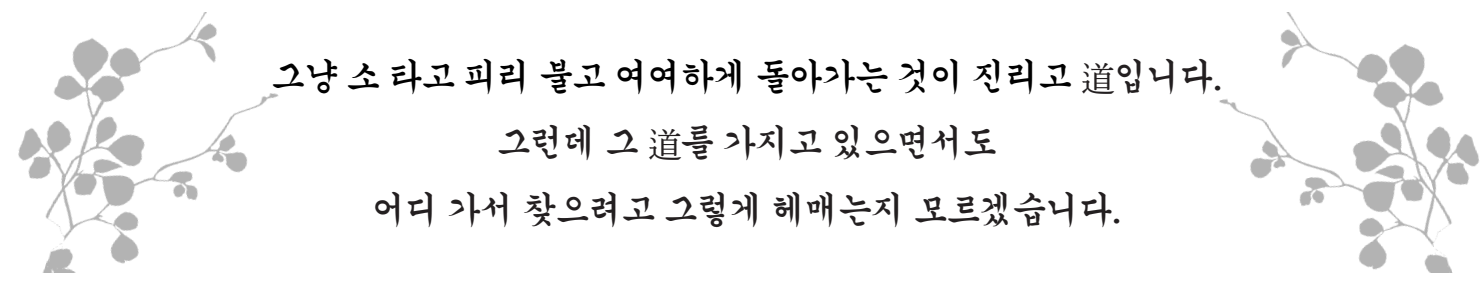
핑계 없는 무덤이 있나요? 어떤 나쁜 병이라고 병원에서 말한다 해도, 어떤 핑계든지 그런 병이 들어서 오는 원인은 유전성이 될 수도 있고 영계성이 될 수도 있고, 업보성이 될 수도 있고 세균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해결치 못한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50%를 한데 합쳐서 우리가 100% 응용을 한다면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죠. 가만히 보면 "참 애로가 많은데 주인공을 찾지도 아니 됩시다. 내가 힘이 없는지..." 이러거든요. 못났든 잘났든, 힘이 있든 없든 수억억 전에서부터 자기를 끌고 왔고, 지금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스님만 연상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스님이나 스님은 자동적으로 벌써 주인공에 참가가 되는 것입니다.

심해 되겠다.' 하면 이게 또 걸린 거죠. 짐을 치니까 또 이런 게 이런 게 걸리지요? 또 누가 지난 일을 잘 맞추는데, 삼재가 들면 모두 그냥 연짱고 망하고 그런다더라 하면 여기에 또 걸리죠. 아예 의식적으로 아주, 의식이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를 가도 방향을 바셔서 가야 된다더라, 이것저것 뭐 이루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일거일동이 다 그래요.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 생각은 못 하고요. 아주 그냥 일거일동... 머리는 요만한데다가 그것까지도 전부 넣고 살아가려니 그릇이 꽉 차서, 좋은 것이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 법당에만 부처님 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불교라는 것이 목탁만 두들기는 게 아닙니다. '불(佛)'이라는 건 생명을 뜻하고 '교(敎)'라는 건 서로 전달하고 말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활 자체가 불교란 얘깁니다. 우리가 모두 죽고 살고 생활하고 이러는 것이 그냥 그대로 불교고 종교란 말입니다. '여여하게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해서 인간으로 진화해서 태어났고, "인간이 되면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부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구실을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소 타고 피리 불고 여여하게 돌아가는 것이 진리고 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디 가서 찾으려고 그렇게 헤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다 두고 어디 가서 도를 찾습니까? 역대 조사들한테서요? 역대 경설로 부처를 찾으려고요? 천만의 말씀이예요.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제일 처음엔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어려웠던 인간이 돼 놓고 보니까 살림살이하기가 또 어렵더라. 살림살이를 하려니까 도구를 만들 줄 몰라서 막대기를 도구로 사용했다. 막대기를 사용하면서 살다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생겨서 돌을 갈아서 쓰기도 하고, 뼈로도 그렇게 쓰고... 그러다 구리가 더 단단할 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 안되겠으니까 또 철을 쓰게 되고... 사람이 이렇게 자꾸자꾸 발전하는 겁니다.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진화되고 또 진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마음의 진화까지 바라게 된 겁니다. 마음의 진화! 이 모습은 일단 사람으로 진화가 됐으니까, 이제 정신적인 진화가 돼야 발전이 되고 창조력이 생기고 만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권(大權)을 얻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내서 잘 이끌어 주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마음을 내야 알아듣고 즉, 마음으로부터 두뇌를 통해서 사대(四大)로 통신이 돼서 움직여려 준다는 거, 그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하나 이 업식이 바뀌어 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속의 이 모든 의식들이 바로 화해서 바뀌어 집니다. 화한다는 건 바꾸어집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살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깁니다. 하나 하나 일어날 때마다 모두 거기 놔라 하는 것은 내 착한 마음으로 바꾸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과거에 업을 지는 대로 자꾸 나오니까,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맡겨 놓고 '과거의 모든 것을 내가 한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가지고 갈 수가 있어. 네 몸뚱이, 내가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어.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가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할 수 있어' 지 '해 주십사'가 아닙니다. 강력한다면 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생각 하나하나, 한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죽고 사는 것도 없어집

나기 전의 업식으로 인해서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가는 도중에 그냥 그 유전으로 인해 영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살거든요. 잘하던 못하던 한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야 정상인데, 한 몸이 두 사람의 마음이 사니까, 세 사람 마음도 살고, 네 사람 마음도 살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분쟁이라는 건 말도 못합니다. 금방 탄소리 하고, 금방 탄소리 하고 이러니 그게 이틀해서 미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 이 공부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결론이죠. 우리가 정신계의 모든 것을 안다면 100%입니다. 우리는 그 정신계의 50%, 반을 모르기 때문에, 반에서 허덕거리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원이 하나 그려져 있다면 그냥 걸림 없이 원을 돌아야 할 텐데, 반밖에 돌 줄 모르니까 반이 막힌 거죠. 마음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냥 마음의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허덕거리니까, 그 반에서만 뱅글뱅글 도니까 걸

예를 들어서, 도둑놈들이 다섯이 있다고 합시다. 도둑질하는 놈과 망보는 놈들이 다 도둑놈이지, 어떻게 도둑놈이 아니니까? 지키는 놈도 도둑놈 아닙니까? 물건을 받아 가지고 가는 놈도 도둑놈 아닙니까? 도둑질을 하는 놈도 도둑놈이죠? 도둑질을 시키는 놈도 도둑놈이죠? 다 도둑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르치는 나도 똑같은 놈이란 얘깁니다.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놈이라 이 소립니다. 똑같은 놈이라면 마음은 체가 없으니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거기에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허탕으로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즉시 응신으로 화해서 거기에 참가가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머리부터 나는 힘이 없다고 전제하고 들어가니까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묘법인데 그러십니까?

그리고 일거일동,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대로, 그 살아온 습성 때문에, 살아온 관습 때문에, 그 이름에 걸려 그만 녹아 나는 거죠. '토정비결을 봤는데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나쁘다더라. 이러니까 조

예를 들어서, 도둑놈들이 다섯이 있다고 합시다. 도둑질하는 놈과 망보는 놈들이 다 도둑놈이지, 어떻게 도둑놈이 아니니까? 지키는 놈도 도둑놈 아닙니까? 물건을 받아 가지고 가는 놈도 도둑놈 아닙니까? 도둑질을 하는 놈도 도둑놈이죠? 도둑질을 시키는 놈도 도둑놈이죠? 다 도둑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르치는 나도 똑같은 놈이란 얘깁니다.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놈이라 이 소립니다. 똑같은 놈이라면 마음은 체가 없으니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거기에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허탕으로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즉시 응신으로 화해서 거기에 참가가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머리부터 나는 힘이 없다고 전제하고 들어가니까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묘법인데 그러십니까?

그리고 일거일동,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대로, 그 살아온 습성 때문에, 살아온 관습 때문에, 그 이름에 걸려 그만 녹아 나는 거죠. '토정비결을 봤는데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나쁘다더라. 이러니까 조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93년 2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HD
www.btn.co.kr

음악에세이 & 편지

방송시간 매주 화 11:20, 토 13:50, 일 21:50

1부 불교계 최강의 DJ 성전스님과 함께..
2부 어라?지찬스님과 차차!호산스님의 환상콤비토크

메일 : post@btn.co.kr
전화 : 1부) 02-3270-3438
2부) 02-3270-3429

사연접수

어떠한 고민거리라도 OK!

부처님과 썸타고 있는 불자들의 이야기도 OK!